

연변시인협회 시총서·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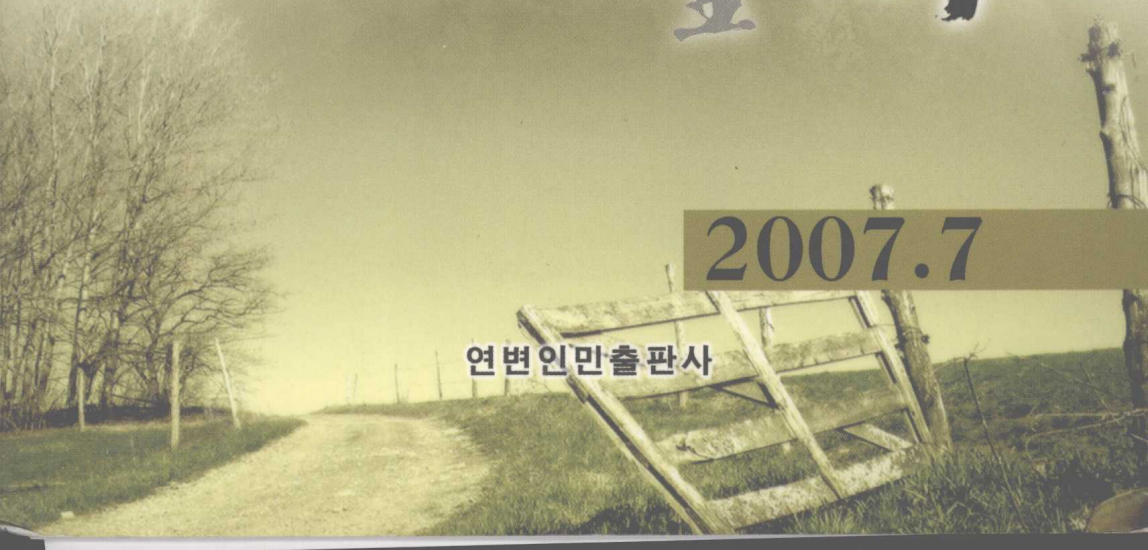
시향만리

萬詩里香

詩香萬里

2007.7

연변인민출판사



연변시인협회 시총서 · 창간호

시 향만리 (诗香万里)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김천사

표지: 전영걸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诗香万里: 朝鲜文/ 金应俊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7

ISBN 978-7-80698-980-7

I. 诗 … II. 金 …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09430号

诗香万里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省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0印张 字数: 3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80698-980-7 (民文)

版次: 2007年 7月 第 1 版 2007年 7月 第 1 次印刷

印数: 1—500 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머리말 · 김 철	2
-----------	---

제1부 축하, 축시

축사/ 채영춘 《시향만리》의 출간에 부쳐	5
축사/ 허룡석—시향이 시단에 그윽하기를	7
축사/ 조성일—《시향만리》창간에 드리는 축하	9
축사/ 남영전—《시향만리》창간을 축하하여	11
축사/ 리삼월—희망과 기대	12
축시/ 리문호—겨레와 함께 영원하기를	14
축사/ 신세훈—연변시인들의 날개	15
축사/ 정희성—축하드립니다	17
축사/ 리헌석—《시향만리》창간을 참마음으로 축하합니다	18
축사/ 서지월—일송정에 오를 일이다, 해란강을 굽어볼 일이다	20
축사/ 조성래—《시향만리》창간을 축하합니다	22

제2부 신작시

1. 뿌리 깊은 나무

설 인/ 아이들처럼(외 2수).....	24
김 철/ 빛바랜 그리움 하나(외 2수).....	29
리상각/ 거목의 꿈(외 2수).....	32
김웅준/ 어곡전(외 1수).....	35
김동호/ 새벽(외 1수).....	38
김 옥/ 코스모스(외 1수).....	40
리선호/ 진눈까비(외 1수).....	42
김운일/ 메아리(외 1수).....	44
리 복/ 그를 기다립니다(외 1수).....	46
리근영/ 영원한 위치(외 1수).....	49
황장석/ 참인간(외 1수).....	51
최홍자/ 행주치마(외 1수).....	54
황상박/ 삼륜차부(외 1수).....	56
리종복/ 나는 물줄기(외 1수).....	57

2. 어느날의 속사

김동진/ 비여있는 집(외 2수).....	59
김철학/ 웃는 망부석(외 1수).....	62
최룡관/ 락화(외 2수).....	64
김응룡/ 연변의 떡갈나무잎(외 1수).....	67
김문세/ 어느날의 속사(외 1수).....	69
김영능/ 조롱안 왕기러기(외 1수).....	71
최기자/ 빨래질(외 1수).....	74
전병칠/ 먼먼 옛날에(외 1수).....	77
오정목/ 하루와 천년(외 2수).....	81
김학송/ 수석련가 · 1(외 2수).....	83
석 화/ 아침에 부르는 처용가(외 2수).....	85
김일량/ 가을밤 · 41(외 1수).....	88
조민호/ 개산툰진 광소촌(외 1수).....	90
박장길/ 안해의 흰머리칼 뽑으며(외 1수).....	92

3. 열매로 가는 길

석문주/ 내 마음 바다로(외 1수).....	95
리해룡/ 잃어버린 길(외 1수).....	97
윤청남/ 꽃 · 22(외 1수).....	100
김영춘/ 우리네 엄마들(외 1수).....	102
김경희/ 어머니 · 2(외 1수).....	104
김승중/ 어곡전, 6월의 그 어느날(외 1수).....	106
심예란/ 여름(외 1수).....	109
김현순/ 여름(외 2수).....	111
주향숙/ 눈물(외 1수).....	114
김인덕/ 가을의 작은 생명들(외 1수).....	116
리범수/ 두부방의 콩알인생(외 1수).....	119
김춘택/ 차를 마실 때, 당신을 사랑할 때(외 1수).....	122

제3부 특집

특집 1 · 전설의 여울목 아무르강에

—흑룡강시인작품특집

리삼월/ 꽃의 비밀(외 2수).....	126
한 춘/ 무제 · 1(외 2수).....	129
강효삼/ 길과 아버지(외 2수).....	132
김성우/ 호랑이 · 48(외 1수).....	135
리홍규/ 항아리(외 1수).....	138
윤영애/ 너를 묻고(외 1수).....	140
최화길/ 외로운 나무(외 1수).....	143
한영남/ 시인의 달거리(외 1수).....	146
김창희/ 장미의 교훈(외 1수).....	148
장련춘/ 우리의 먹기(외 1수).....	150
리창현/ 가시는 당신의 뒤모습을 밝으면서.....	153

특집 2 · 료동별 그 끝없는 지평선에

-료녕시인작품특집

김 파/ 프리즘속에 비낀 풍경.....	155
김 군/ 매화.....	158
리문호/ 향수하, 그곳에 가고싶다.....	159
박경상/ 방황, 계절의 풍경.....	161
박경남/ 봄이 올 때면.....	162
류광순/ 외상장부.....	163
강애영/ 비밀.....	164
김옥화/ 투명한 열매.....	166
차옥순/ 당신의 강.....	167
서정순/ 당신이 지나간 자리엔 아픔만 남았나이다.....	168
박애자/ 내겐 너뿐이야.....	170
박병대/ 탐앞에 서니 사진을 찍고싶다.....	172
김창영/ 갈숲을 바라보며.....	174
김룡호/ 누이야.....	175
조약돌/ 당신과 걷는 길.....	176
로춘애/ 고백.....	177

특집 3 · 푸른 종소리 새아침을 열다

-연변대학 <종소리문학사> 작품특집

안금화/ 겸손을 위한 기도(외 1수).....	179
박춘란/ 아빠에게(외 1수).....	181
최미성/ 이름(외 1수).....	183
모동필/ 하루살이(외 1수).....	185
김 미/ 홀리서(외 1수).....	187
최금희/ 어제가 더 아름다와보여서(외 1수).....	189
김광일/ 달빛편지.....	191
김미란/ 외로움.....	192
전은주/ 밤비(외 1수).....	193
김국화/ 사랑.....	195
리해연/ 시내물과 조약돌.....	196

특집 4 · 남쪽창가에 뜨는 별

한국시인작품특집

서울의 시인 —

김규동/ 두만강에 두고 온 작은 배(외 1수).....	199
민영/ 석상(石像)의 노래(외 1수).....	201
송문헌/ 오월 미루나무는 바람에 날리고(외 1수).....	203
문창길/ 무등을 타던 아이(외 1수).....	205
김인구/ 버려진 책(외 1수).....	207
김형효/ 길(외 1수).....	209
고종목/ 양말(외 1수).....	211
리윤정/ 사랑한다는건(외 1수).....	213
김효경/ 길은 시계속에서 맴돈다.....	216
박숙희/ 빈 하늘(외 1수).....	218
지영희/ 누드, 누드(외 1수).....	220
박영희/ 그녀가 꿈꾸는 삶(외 1수).....	223

대전 의 시인 —

리헌석/ 파밭에서(외 1수).....	226
강애나/ 물권총(외 1수).....	228
김동준/ 고치(외 1수).....	230
고광직/ 부활(외 1수).....	232
최재경/ 유년의 장마(외 1수).....	234
김균태/ 숲에 들다(외 1수).....	236
리영옥/ 눈맞춤(외 1수).....	239

대구 의 시인 —

서지월/ 해란강에 와서(외 1수).....	241
정정진/ 장가계에 올라서서(외 1수).....	243
강가애/ 물봉선화(외 1수).....	245
윤미진/ 다부재길 따라(외 1수).....	247
리민영/ 상사화를 보며(외 1수).....	249
장준향/ 내 고향(외 1수).....	251
신표균/ 어딜 가냐구요(외 1수).....	253

김삼경/ 달맞이꽃(외 1수).....	255
최별희/ 작약(외 1수).....	257
리은림/ 피안(외 1수).....	259

부산의 시인—

서규정/ 순장(외 1수).....	261
안효희/ 몸의 기억(외 1수).....	264
최정란/ 웰위치아(외 1수).....	267
구해인/ 폐선(외 1수).....	269
조성래/ 휴일(외 1수).....	271

제4부 시인탐방, 문학평론

전은주/ 식을줄 모르는 시정(시인탐방 1).....	274
석 화/ 서지월, 그 이름을 돌에 새기다(시인탐방2).....	283
송용구/ 상생의 길을 여는 생명의 몸짓(문학평론).....	294

편집후기.....	305
-----------	-----

제1부 머리말, 축사, 축시

1. 머리말
2. 축사
3. 축시



머리말

김 철 · 시인

(전 《민족문학》 주필)

시향만리, 시의 향기가 만리에 풍긴다. 거참 좋은 말이다. 향기를 잃은 시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오는 판에 향기가 만리에 풍기는 시를 쓰자는 야심찬 주장은 매우 옳은 말이다. 그것은 우리 시인들의 바람이요, 목표이기도 하다. 시의 향기—그것은 흠내요, 기름내요, 삶의 밑거름내다. 세월과 력사의 시공을 넘어 오래도록 풍기는 시의 향기는 모두 삶의 실태요, 시인의 진언이었다.

이 멋진 구호를 태어난지 한돌밖에 안되는 우리 시인협회가 뚜렷이 내걸었다. 호언장담같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다. 야심찬 구호를 내걸고 그 과녁에다 활을 쏘아대는 우리 시단의 벼들이 돋보인다. 꼭 만리에 향기가 풍기는 좋은 시들이 쏟아져나오리라 기대된다.

연변시인협회가 고고성을 올린지 만 1년, 북경에 살고있는 나의 귀에도 기꺼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다. 그중에도 시인들이 농촌에 내려가 농민들의 구미에 맞는 시들을 쓰기에 힘을 기울이고있다는 소식, 건 참 잘한 일이다. 근래 우리의 시들에 흠냄새가 풍기지 않는것이 근심거리였는데 시에 흠냄새를 묻혀라. 참 좋은 소행

이다. 인민과 문학사이를 물과 고기에 비유했다면 시와 농민은 흙과 곡식의 관계라 할가, 흙속에 깊숙이 뿌리박은 곡식은 무성하기 마련이고 그 낱알도 호합지기 마련이다. 농촌에 낫을 돌리고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돌리라는건 당중앙의 전략적호소이다. 우리의 시가 농민을 노래하고 사회주의농촌의 변모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시인협회가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했다는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흙내나는 좋은 시들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또 시작품세미나르와 시문학리론탐구에 힘을 기울였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건국이래 우리 조선족시단에는 날로 활발해지는 시작품창작에 반해 리론탐구와 연구가,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말하자면 시문학발전이 절름발이걸음을 하고있다는 말이다. 좀더 체계적인 시문학리론연구, 구체작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론, 창작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도... 이런것들이 너무 적은 상황이다. 창작은 리론이 앞장서야 하는것이다. 좋은 리론의 인도가 없이는 훌륭한 창작을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고금중외의 문학사에서 훌륭한 시인은 그 시대의 걸출한 평론가와와의 합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그러자면 리론가가 시를 알아야 한다. 쓰지도 달지도 않는, 장화 신고 다리 굽는 식의 평론은 대체로 창작에 도움이 없는것이다. 우리는 우리 문단을 이끄는 훌륭한 평론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시인도 평론가가 되여야 한다. 글쓰는 사람이 글을 평론하는 기풍도 바람직하다.

연변시인협회 시총서 《시향만리》의 출간은 실로 축하할만한 일이다. 우리 시인들이 뛰놀수 있는 운동장이 또 하나 생긴 셈이다. 운동장이 없이 축구선수를 기대할수 없듯이 간행물이 없이 어찌 시인의 출현과 성장을 기대할수 있으랴!

문제는 돈이 없어 못꾸리는데 사회각계의 유지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는바이다. 우리 민족의 글 살리기,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는것이요, 생존을 위하는 거사이기도 하다.

모닥불을 피우자. 나무 한가지 한가지가 큰 불기둥을 일으키듯이 우리도 물심량면으로 힘을 보태어 시총서 《시향만리》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오래오래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바이다.

2007년 5월